

## 哲學者로서 文學者에게 一言 作家의 熱情的 叡知 [下]

申南澈

이와 같이 作家에 있어서는 作品 以前과 作品 以後가 다같이 重要하다. 作家라는 生活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云謂하듯이 무슨 別다른 特質을 가진 獨自의 境地를 가진 것 같이 自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들에게 讀者로서 要求하는 바는 이 作品 以前을 어떠한 作品 속에 具現하며 그 具現시킨 作品에 依하여 얼마만한 感興과 影響을 讀者에게 주는가가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作家는 現實을 깊이 洞察하는 明敏한 知性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枯淡한 理論的인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體驗을 情熱的으로 씹어가면서 그려내야 한다. 그는 經濟的, 社會的-乃至 文化的인 諸情熱을 皮뚫어보는 明察과, 그 確信이 있어야 한다. 觀照的 態度도 必要는 하나 그것을 超越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 그러자면 그는 行動的 實踐的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이 行動的, 實踐的이라는 말은 人間生活의 秘密을 열어 헤쳐서 무슨 強烈한 意欲을 表現하는 同時에 讀者로 하여금 限 없는 感興을 느끼게 하여 무엇을 마련하게 하는 것을 意味한다.

讀者가 그 作品을 읽고 무엇을 마련한다는 것은 卽 作家 自身이 意欲하는 行動者라는 말과 同義語다. 作家는 이것을 作品 속에 形象化하지 안혀서는 아니 된다. 單純한 描寫가 아니라 意欲的인 實踐을 조금도 不自然함이 없이 作品 속에 담지 안흐면 아니 된다. 作品 以前에 있어서의 苦悶과 努力 없이 이것이 充分히 可能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作家는 自己의 個人性-換言하면 體驗性(感性的인 同時에 그 複雜한 綜合으로서의 苦悶과 意欲)을 꼭 重視한다. 勿論 이것은 重要할 것이다.

眼界는 좁다 하더라도 個人性에 踴躍하여 잇는 心境小說, 私小說, 身邊小說 等도 決코 그 存在價値가 없다고 否定하지 안는다. 그러나 그러한 卑近한 世界에 安住하여 身邊雜記的인 感傷的 氣分에 沈沒하여버리는 創作態度

에는 好感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조차 안타고 하는 것은 그 個人性이 아니라 그 個人性에서 오는 洞窟性이다. 作家는 이것을 警戒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作家는 作品 以前의 努力, 苦悶, 意欲을 作品 속에 具體化하는 明察하는 精神-叡知를 가지지 안하면 아니 된다. 卽 現實을 描寫하여 感動을 주는 同時에 現實生活의 本質을 把握시키며 새로운 人間의 類型을 發見시키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明察하는 精神때문에 現實은 決코 歪曲되지는 안흐리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살어올 것이다. 情熱에 불타는 叡知라고 하면 흔히 矛盾되는 것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서로 矛盾하는 듯이 보이면서 실상은 矛盾하지 않는 것이 作家의 創作에 잇는 特質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한 개의 願望으로서 作品 以前과 作品 以後를 區別하면서 簡單하나마 意見を 말했으나, 作家는 그가 偉大하면 偉大할수록 作品 以前과 作品 以後가 渾然히 一體가 되어 한 개의 思想에까지 昇華된 作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現實을 그려낸 그의 作品을 도리어 現實이 模倣할 것이다.